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후 4:18)

2019년도 획기적 합창세미나는 개강예배 찬양을 위해 오전 9시 반부터 모여 연습한 100여명의 찬양대로부터 시작되었다. 11시에 드러진 예배에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를 박동희 이사의 지휘로 개강예배 찬양대가 찬양하였다. 이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기반 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동역자들이 되자’는 요지로 이대구 목사님이 설교하였다.

점심식사 후 폐막연주회를 위한 연습이 4개의 장소에서 있었으며,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합창 마라톤은 어린이 합창단, 여성합창단, 그리고 선교합창단의 순서로 18개 합창단이 참여하였다. 어린이합창단은 천사들의 노래와 같은 청아한 찬양을 선보였고, 여성합창단은 부드럽고도 풍부한 울림을 가지고 높은 표현력을 들려주었고, 섬세하면서도 영감 있는 합창을 들려준 선교합창단은 합창 마라톤의 백미처럼 느껴졌다. 저녁 7시 반부터는 국내 최고의 4개 합창단이 참여한 첫째 날 특별 초청 공연이 열렸다. 특히 이상길 지휘자가 과거 제자와의 일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느낀 간증은 연주회를 더욱 은혜롭게 만들었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2019년 획기적 세미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교회음악 동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도 전국의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배움의 열정을 나눌 획기적 세미나를 허락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지난 세미나 참석자들이 주신 여러 의견들을 모아 새로운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리딩세션 시간인데 올해부터는 출판사별로 진행하도록 하여 시간 절약 및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새롭게 정통 음악이론과 CCM이론, 키보드연주법 등을 통하여 교회음악의 방향성과 실용성을 더욱 제고(提高)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월요일 저녁과 화요일 저녁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을 초청하여 최고의 콘서트를 기획하였고 수요일저녁의 '수요찬양 대축제'를 준비하여 계속된 찬양의 축제가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합창계의 최정상의 지휘자들이 직접 지도하시는 합창리허설 테크닉과 연주기법 클래스를 마련하였고, 개막 및 폐막 연주합창단, 지휘 분반 수업과 다양한 전문 세미나, 또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메시아해설 및 정통 바로크 연주기법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2019년도 여름, 우리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모여 다시 한 번 맘껏 공부하시고 연주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9일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장 이기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